



Vol.11 2024 겨울 고창!

문화를 읽는 창

특집/ 로컬 축제

로컬 페스티벌의 현재와 미래 지역을 지역답게, 지역과 지역을 이으며 마침내 모두를 살리는 축제

제2회 고창치유문화축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섯 가지 감각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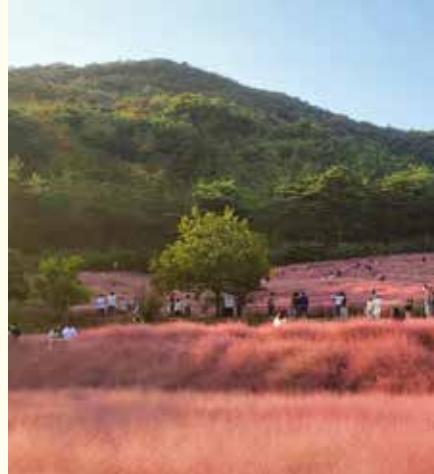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온고Z신, 어르신 세대와 MZ세대를 두루 어울리게 하는

고창 핑크뮬리축제 꽃객의 그물코를 뛰어 일어나는 지역 창생의 흥미로운 연쇄

2024고창국제책영화제 '들어봐, 시인처럼. 더듬, 더듬' 책과 영화, 사람을 잇는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고창! 문화를 읽는 창> 제11호 표지 이야기

꽃객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꽃파티 ‘고창 핑크뮬리축제’이다. 매년 고창 핑크뮬리 시즌(9월 중~11월 초)이 되면 전라북도 민간정원 1호 꽃객프로젝트에서 가을 꽃파티가 열린다. 분홍빛으로 물든 드넓은 정원에서 핑크뮬리뿐만 아니라 맨드라미, 백일홍, 천일홍 등과 50여 년 이상 아름답게 가꿔온 꽃과 나무를 만날 수 있다.

<고창! 문화를 읽는 창> Vol.11 겨울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펴낸곳 (재)고창문화관광재단

펴낸이 심덕섭

취재편집 책마을해리

등록일 2020년 07월 21일

등록번호 제고창-비-00100호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화 063)561-1110

팩스 063)561-5556

홈페이지 www.gctf.or.kr

ISSN 2733-9971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고창 소식지 신규 구독자 이벤트

구독이닭!
구독하고 퀴즈풀고 치킨먹자!

두~등
**지역을 뜻하는 □□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기를 기념하는
의식을 뜻하는 □□가 결합된 합성어**

*네이버풀스로 결답 제출(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참고)
이벤트 경품 치킨 쿠폰 증정(44명 내외 추첨)
이벤트 기간 2024. 12. 6.(금) ~ 12. 19.(목)
당첨자 발표 2024. 12. 20.(금) ※당첨자 개별 문자발송
이벤트 신청 온라인 신청(QR코드)
(Hint. 고창문화관광재단 소식지 11호 주제)

참가신청 QR코드



여는 글 002

겨울, 눈 고장 설창(雪敵)의 엄밀한 차가움에 깃든 포근푸근함을 나누는



특집/ 로컬 축제 004

로컬 페스티벌의 현재와 미래 지역을 지역답게, 지역과 지역을 이으며 마침내 모두를 살리는 축제 004

제2회 고창치유문화축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섯가지 감각 함께해요 008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온고Z신, 어르신 세대와 MZ세대를 두루 어울리게 하는 012

고창 핑크뮬리축제 꽃객의 그물코를 끼어 일어나는 지역 창생의 흥미로운 연쇄 016

2024고창국제책영화제 '들어봐, 시인처럼. 더듬, 더듬' 책과 영화, 사람을 잇는 020



고창, 여기에 스며요 024

고창문화관광해설사협회 박미영 회장 트레저헌터, 고창 일곱 보물을 찾고 알고 나누는 최전선에서 024

〈옛도심조양관〉 고창천 따라 흐르는 따순 바람, 오래된 미래를 오늘로 불러오다 027

브런치카페 〈밀과보리〉 '착하게 먹어요' 보드란 봄 마음으로 365일을 사는 030



고창을 찾아요 033

고창의 숲과 소리 펌투어 고창만의 웰니스를 찾아서 033

야간관광 인플루언서 펌투어 어둠을 밝히는 별빛으로 빛나는 고창 야경 037

친환경 관광 활성화 자전거 여행 천혜의 자연환경, 고창의 문화유산과 함께한 040

동리시네마 고창영화의 전당, 작아서 발길이 더 경쾌한 043



재단소식 046

공연소식, 고창 새 책 048



〈꽃객〉 겨울 풍경

여는 글—— 겨울, 눈 고장 설창(雪敞)의 엄밀한 차가움에 깃든 포근푸근함을 나누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십한십온으로 더 들쭉날쭉, 하리라는 대한민국의 겨울을 맞아요. 계절과 계절을 이어가며,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정신바짝차리자’는 시절 무릅쓰고, 여기 작지만 아름다운 《고창의 창》 소소한 지면으로, 지난 1년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살림살이와 그 곁에서 어깨 나누며 피어난 다양한 색과 맛, 몸짓을 찾아보았어요.

이번 우리가 이 작은 창문 너머로 살펴본 우리 고창의 이야기는, ‘축제’예요. 고창의 축제이니, 당연 지역의 축제와 연동되는 다양한 의미가 실려 와요. 지역을 살리는, 상생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같은 다양한 수식이 붙는 이유가 지역의 축제 ‘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고창에서 멀리서부터 혹은 가까이부터 시작되어온 크고 작은 가을 축제를 살펴보았어요. 고창대표축제 <모양성제>부터 <치유문화축제>, 모양성제와 연계한 꽃정원의 맥락도 슬쩍 끼워 보았구요. 부안면 <꽃객프로젝트> 통해서는, 꽃 정원의 가치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흐름에서, 가치공유 삼단논법으로 풀어보았어요. 그리고 올해 여덟 번째를 맞는 고창국제책영화제 소식도 더불어서요. 책영화제는 <생태예술제>와 <행성지구인문학>과 연동해 매듭을 짓고 있었어요. 축제는 여러 측면으로 우리에게 작용해요. 가장 중요하게 꼽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어울리며 축제 앞과 뒤 오래 쌓아온 집단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맷고 푸는 가치, 나누며 서로 좋은 ‘사회적 유대 강화’의 측면이겠죠. 고창의 여러 축제가 담아온 그 가치를 차분히 읊겨보았어요.

고창에 스미는 공간, 맛, 사람의 이야기도 이어가요. 어쩌면 고창은 그렇게도 귀하고 아름다운 곳, 맛, 사람의 고장일까요. 이번 호 고창 살피는 ‘창(窓)’을 통해 엿보세요.

특별히 고창영화공간, 동리시네마의 앞선 역사를로부터 오늘까지 이야기며 겨우내 봄내 상영할 개봉영화 소식에 고창 이야기 담긴 책까지 두루 소개해요. 겨울에 겨울에 심심할 새 없을 거예요. 2024년 한해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 식구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챙겨 읊겨놓았어요. 고창의 문화와 관광을 이끄는 젊은 목소리를 새겨들어 보아도 좋아요.

우리는 겨울 지나고 봄마저 보내고 새 이른 여름에 신록(新綠)으로 새로이 만나요.

지역을 지역답게, 지역과 지역을 이으며 마침내 모두를 살리는 축제

로컬 페스티벌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고 전망하다

대한민국은 축제의 나라다. 페스티벌에서 카니발까지 글로벌리 무수한 축제들이 무색하게 우리의 축제는 전통으로부터 이어온 묵직한 맥락을 담는 축제부터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미리 당겨와 누리는 대혼종의 축제까지 다양한 빛깔이 난무한다. 나라에서, 시절 절기에 따라 맥락화해 열리는 축제 말고도 지역마다 그 지역의 독특한 시간성, 장소성, 품어낸 산품들이 축제 형태로 자리잡고 피었다 지기를 거푸하고 있다. 지역성을 담은 로컬 축제, 페스티벌의 오늘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한다. 물론 여기 모아오는 축제의 꼭지는 고창의 것이다. 크고 작은 규모에 얹매지 않았으니, 가을을 가을답게 감싸는 고창의 역동, 축제를 주마간산격으로 살피시기를 바란다.



축제의 기능 가운데 으뜸,

지역공동체를 축으로 사회적 유대의 강화

축제는 개인 혹은 집단이 그 개인 집단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간을 기념하는 의식을 말한다. 영어로 페스티벌은 성(聖)스러운 날을 어원으로 한다니, 어쨌거나 종교적인 의례로부터 기원을 잡는 것이겠다.

축제는 더불어 함께, 놀이로 어울리는 의미에, 특정한 공동체가 모이고 흩어지며 오래 이어온 문화를 다시 이어가는 통로로도 작용한다. 물론 종교적인 다짐, 염원, 경외로움을 담고 있기도 하다. 정말 중요한 치례가 하나 더 있다. 축제를 여는 공동체의 통합 측면이다. 축제 아닌 모든 날들 사이에 쌓아온 관계의 스트레스를 온통 털어내는 ‘사회적 유대의 강화’ 측면말이다. 고창의 축제에는 이 소소한 의미들이 잘 담겨있다. 더더더 부드럽게 우리 안팎을 어루만지는 새로운 축제의 갈래, 그것은 앞으로 지금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끝일 테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뭐뭐뭐일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매년 1200여 개의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몇백 개가 아니라 천 몇백 개이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2024~2025시즌 문화관광축제 스물다섯 개를 정했다. 목록 일람해 보자.

강릉커피축제, 고령대가야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목포항구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부평풍물대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영암왕인문화제, 울

산옹기축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정선아리랑제, 진안홍삼축제, 평창송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화성뱃놀이축제 들이다. 이 가운데 광안리어방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세 축제는 최고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 고창이 자리한 호남 전라권 축제만 모아보자.

목포항구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순창장류축제, 영암왕인문화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홍물축제, 진안홍삼축제 들이다. 올해 새로 대표축제로 낸 목포항구축제도 눈길을 끈다. 음식, 문화, 공간 이렇게 특징지을 수 있다. 그 바탕은 물론 ‘지역성’ 로컬리티이다. 정치적인 고려도 실려서 ‘선정’되고 한편 선정 안되고이겠지만, 어떤 축제들이 지금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지 척도 가운데 하나로는 작용하겠다.

규모의 축제, 규모를 넘는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

길게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축제들을 일별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하나에 사활을 걸



고창 핑크뮬리축제



고창꽃정원축제



학원농장 메밀꽃축제



고창모양성제

것인가? 오로지 ‘잘난 하나’만이 아니라 지역 축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축제 생태계 차원으로 살피자는 입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규모가 큰 ‘잘난 축제’ 하나를 두고, 일정한 지역(우리로는 하나의 행정단위, 기초자치단체급) 전체가 소소한 축제의 흐름을 이어서 주말 전체를 혹은 시즌 전체 며칠을 지역에 두루 둑어 ‘먹고놀고자고쓰고’ 하게 하자는 것이다. 고창을 보자, 가을시즌 고창을 찾는 밀도 높은 공간은 고창읍(고창읍성과 읍내권 관광지), 선운산과 선운사(꽃무릇축제), 가을 학원농장, 상하농원과 갯벌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들든 아니든 여섯 군데 관광거점, 고창읍성·판소리,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미당시문학관, 무장현 관아와 읍성, 동학농민혁명홍보관들과 거기 활동하는 해설사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식의 축제 운용을 꼼꼼하게 다듬는다면 지역축제의 흐름을 이끄는 채비를 할 것이다.

고창의 가을, 축제를 따라

점점점 선과 면으로 걸음을 이어본

모양성제는 고창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민간기관에서 이어오던 것을 행정에서 받아 규모를 키우고 체계를 새로 튼실하게 했다. 가까운 노동저수지 권역의 <고창꽃정원>과 연계한 방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10월 초중순을 군민과 외부 관광객이 밀도를 높이고 있다. 그 시기 조금 앞서 열린 고창치유문화축제와 시기가 겹쳐 길게 이어가는 꽃객프로젝트, 시기가 꼭 겹친 책영화제를 함께 살펴본다.

이 시즌에 고창 가을을 수놓은 다양한 빛깔의 축



선운산 꽃무릇축제

제, 혹은 축제비슷한 모임과 놀이를 찾아본다. 9월 28일 하루 온종일 ‘갯벌을보듬장’, 11월 5일 고창갯벌을 무대로 친환경 의상 패션쇼 ‘Workwear, Work Hear 프로젝트’, 9~10월에 걸쳐 학원농장 ‘메밀꽃축제’, 10월 중하순 ‘상하농원 팜페스티발’, 9월 말~11월 초 청농원 ‘핑크뮬리시즌’ 들이다. 물론 이번 《창》을 통해 찾아본 치유문화, 꽃객, 책영화제와 고창 곳곳의 관광거점 활동을 포괄해 점을 찍고 그 점과 점을 이어보자. 고창의 가을이 황금들판 못지 않게 황금알을 낳게 되리니.

지름이 큰 왕점, 고창모양성제와 그보다 훨씬 작은 고만고만의 작은 점들을 이어보는 상상력을 발휘할 때라고도 한다. 그 온통 찬란한 저들만의 빛깔로 춤추는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 지역 모두를 골고루 살리는 ‘면’과 ‘층’의 확보, 이것이 축제를 둘러싼 고창의 진면목을 알리고 누리게 하고 군민 스스로도 즐기며 그 과실을 나누는 일거삼득의 지혜일 테다.



특집/ 로컬 축제 제2회 고창치유문화축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섯 가지 감각 함께해요

만들어가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모두 치유되는 축제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섯 가지 감각’을 주제로 제2회 고창 치유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문화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과 함께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을 깨워

제2회 고창치유문화축제 개막식은 9월 7일 고창읍성 메인무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치유문화축제의 상징성을 담은 퍼포먼스와 바리톤 노동용, 소프라노 김지혜, 주현미와 노라조, 양다일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는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소개하고 주민 주도형 문화도시 우수사례 전시와 치유문화도시 브랜딩 결과물인 로고와 캐릭터, 컬러시스템 등을 전시했다. 각자 생각하는 치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고창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고창의 치유문화도시와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실 앞에 마련된 스트레스 검사기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건강 정도를 파악하여 몸의 감각을 깨우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난 공간도 있었다.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는 자연에서 찾은 꽃과 식물을 두드려 염색하는 친환경 프린팅 체험과 치유 악기 연주, 제철 자연향기 프로그램, 자극적인 맛에 지친 미각을 치유하는 비건샌드위치 만들기, 실로 그림을 그리는 터프팅 체험 등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몸의 감각을 깨우는 주민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창읍성 메인광장과 군립도서관, 동리국악당에서는 문화도시 전문가 포럼과 시민 참여형 사업 우수사례 발표, 문화도시 치유팸투어 등 다양한 시민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치유문화축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숲의 향기와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숲명, 시원한 고창 바다의



사운드를 담은 ‘산해진미(數)’ 치유프로그램과 고창읍성의 아름다운 숲 안에서 내 안의 감각을 회복하는 요가와 사운드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풍성'

축제기간 동안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에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우쿨렐레, 판소리, 오카리나 공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베블쇼와 풍선아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치유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갔다. 건강한 먹거리와 플



리마켓을 운영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행사 기간 내 다휘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다휘용기 대여 등을 통해 ESG의 가치를 축제에 담았다.

특히, 고창읍성 곳곳에 있는 숲속 쉼터, 오감쉼터에서 여유롭게 휴식하며 긴장하며 살아 온 삶의 피로를 풀고, 푸르른 자연의 색과 숲의 향기, 어느 곳에서 쉬어도 잔잔하게 들려오는 새소리와 음악소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의 멸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쉼

이번 축제에 친구와 함께 참여한 방문객은 나무 그늘 아래 휴식하며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온 한 방문객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몸에 해롭지 않은 먹거리가 다양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 쉴 수 있는 공간과 꾸준히 들리는 노랫소리가 좋았다, 어른도 차분히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가와 고창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주제로 활동하는 활동가와 공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고창군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알리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나를, 고창의 찬란한 자연과 역사 속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는 축제였다.





온고Z신, 어르신 세대와 MZ세대를 두루 어울리게 하는 고창대표축제 고창모양성제 순한 번째를 틀어보다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대표축제,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의 자랑이다. 고창의 옛이름 ‘모량부리’로부터 오래오래 이어온 그 이름 ‘모양’을 담은 고창읍성, 그 일대에서 열리는 고창 중심축제, 고창모양성제를 살핀다. 로컬 축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 찬찬한 눈 빛으로 어르신 가족부터 청년 MZ까지를 두루두루 보듬은 축제 현장을 읊긴다.



예와 오늘, 앞선 사람과 요즘 사람이 뒤섞여 새로이 미래로 잇는다

뒷것 김민기, 세상을 휘휘 서둘러 떠난 시대의 가객, 김민기 신드롬은 앞것, 뒷것의 역할이 나뉘는 시대를 밀도 깊이 비추어주었다. 이번 모양성제는 옛 것에 요즘 것이 어떻게 스스럼없이 어울리는가, 경쾌한 시도였다. 지난 10월 9일~13일 4박 5일간 고창읍성 일대에서 제51회 고창모양성제가 열렸다. 이번 모양성제는 옛것을 소중히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온고Z신: 옛 것에 MZ를 엿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고창모양성제는 국내에서 성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고창읍성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다. 매년 음력 9월 9일(중앙절)을 전후하여 개최하는 ‘고창 모양성제’는 고창읍성(모양성)을 소재로 제등행진, 강강술래, 답성놀이, 고창농악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와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는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다.

고창의 이야기 이야기를

체험으로 풀고 보고먹고놀음새로 푸는

고창읍성은 전각 하나, 성곽의 돌 하나에도 많은 삶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고창모양성제는 그런 옛이야기들을 잘 다듬어 다양한 행사로 풀어내고 있다. 답성놀이는 윤년의 윤달이 돌아오면 머리에 돌을 이고 한 바퀴를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을 담고 있는 놀이다. 겨울을 나는 동안 부푼 성을 밟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답성놀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51회 고창모양성제는 체험프로그램과 공연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 당근 마켓, 고창읍성에서 즐기는 감성 가배집과 철학관. 풍화루의 화공이 그려주는 모양 도화서가 있었다.

특히, 고창모양성제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기획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다. 체험프로그램은 고창읍성 판소리 박물관 앞에 마련한 체험마당에서 진행하였고 얼굴에 썩! 페이스 페인팅, 보고 만지고 움직이는 나무큐브 만들기, 유네스코 7가지 보물모자 꾸미기, 내 손으로 만드는 희망의 바람개비 만들기, 구불구불 7가지 보물 드로잉 선캐처, 반짝반짝 자개 그립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무큐브 만들기 체험



슈링클스 굿즈 만들기 체험



희망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자개 그립톡 만들기 체험



밀짚모자 꾸미기 체험



페이스페인팅

**가상현실에 미디어아트까지,
더 이상 재미있을 것 없는 모양성제 대표 볼거리**
공연프로그램으로는 잡색놀이가 일품인 고창 농악한마당과 어린이 어울마당, 어린이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었던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사또의 생일잔치>를 운영했다. VR수성전과 AR보물찾기 등 모양성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메타월드in고창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게임 세상이 펼쳐졌다.

야간에는 모양성제와 고창읍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양성: 역사의 길과 벽을 여는 빛’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공연, 드론라이트쇼 등을 운영했다. 고창읍성 내부 맹종죽립에서 펼쳐진 제너레이티브 아트쇼는 고창읍성의 계절변화에 따른 조명과 사운드로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노동저수지 일대 야간경관과 다양한 포토존에서는 인생샷을 남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잔디광장에 설치한 <월하의 돌밭> 프로그램은 ‘신기하다’, ‘재미있다’며 많은 분들이 체험에 나섰다.

20만 명 방문 참가자들의 이구동성, '구경재미'
이번 제51회 고창모양성제는 조선시대 한량을 테마로 분장한 연기자와 스탬프 투어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슬기로운 한량생활’과 힐링 프로그램인 ‘멍때리기 대회’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했다.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옛것을 소중히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온고Z신: 옛것에 MZ를 얹다’의 주제에 맞

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전국에서 방문한 20만 여명의 방문객에게 즐겁고 질 높은 체험을 제공했다는 평이 많다.

고창모양성제와 함께한 참자가들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체험이 알찬데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고창과 모양성제를 알게 되어서 교육적으로도 좋은 축제였어요”라고 말했다.



고창의 산들바다갯벌 공간과 시간의 스펙트럼을 직조하는 축제의 바탕축제

모양성은 예부터 마을 사람들의 염원과 기원이 담긴 공간으로 담성놀이를 하며 자신의 바람을 기원했으며 고창군민과 모양성제를 찾아온 많은 방문객의 소망이 모양성제와 함께하며 톡톡톡 차근차근 이루어지리라. 가까운 꽃정원 나들이며 고창 곳곳의 가을 재미와 이어져 고창 가을 축제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나눴다. 동호 구시포 갯벌과 해변길로부터 책영화제, 선운산과 꽃객프로젝트, 꽃정원으로 이어지는 고창 가을 시간축과 공간축의 절묘한 직조(織造), 그 한 바탕에 놓인 축제의 맛을 고창사람들 모두가 나누어 챙긴다.

꽃객의 그물코를 뛰어 일어나는 지역 창생의 흥미로운 연쇄

부안면 꽃객에서 찾은 가치공유 삼단논법

선운산IC든지, 흥덕이든지에서 선운사로 향하는 4차선 새길에서 저 아래로 보이는 산의 기슭이 붉다. 가을마다 붉은 폭포가 넘쳐 흐른다. 2019년 개장한 꽃객프로젝트 민간정원이다. 매년 10만에서 8만여 명, 가을 한 시즌을 북적북적, 혹은 붉적붉적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꽃정원을 찾았다.

꽃객은 등지, 따수이 지역창생을 보듬는

“여기 고창의 기슭에서 꽃 손님과 만나다보면 세상이 보여요.”

꽃객프로젝트 김보현 대표가 차분한 미소로 반긴다. 민간정원 <꽃객>을 열고 안타까이 찾아온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관광의 트랜드가 어떻게 격렬하게 변하고 있는지,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대 젊은층에서 중장년층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방문객 증감추이가 숫자로 도드라진다.

꽃객은 고창군 성내면 그의 고향이 등지다. 1972년 은성농원 은성조경 이름으로 자리잡은 정원의 시작과 함께다. 수십년 원예전문가로 살아온 부친의 일은 금파농장으로 이어졌고, 이제 농원의 맥을 김 대표가 이어, 청년시절부터 준비에 준비 끝에, 고향의 등지를 옮겨 새로 자리잡은 지금 <꽃객>은 도약하는 거점이다. 1972년 부친으로부터 성내를 거

점으로 시작한 작은 가족정원이 축사와 건축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며 2009년을 끝으로 마감하고, 2010년에는 이곳으로 옮겨와, 오랜 준비 끝에 꽃객 이름을 내걸고 꽃손님을 반가이 맞이하고 있다.

돌담을 두르고 손수 그림을 그려 설계 감독한 어머니 손길 따라 집이 지어지고, 소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노각나무, 철쭉, 분재 등 1,000여 그루의 나무들을 옮겨 심는다. 그리고 7년, 꽃객의 기틀이 잡혀간다. 2019년에는 전라북도 민간정원 1호로 등록된다.





농업의 일대전환, 꽃객 가치 공유의 삼단논법

꽃객에 들어서며 손님을 맞는 반송들과 더불어 주변 식당을 알리는 홍보판이 눈에 먼저 담긴다. 정원의 새로운 가능성은 챙겨보는 삼단논법의 결론, ‘정원의 사회적 가치, 지역과 공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꽃객 내부에 식당을 열 수도 있지만, 지역에 자리잡은 업체들에 기회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 앞단에 새로운 여행패턴으로서 정원의 확장, 도시생활에서 잊어버린 누구나의 정원으로 부가가치를 낳게 하고, 다음 단은, 그 정원 안팎에서 태어나는 다양한 농업생산품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로 확장하고, 마지막 단은, 그 확장한 여러 가능성을 지역과 나누자는 뜻이다.

“벼를 심던 논에 성토를 하고 배수시설을 갖추고 의도대로 초본 목본을 가지런히 펼치면, 어디나 만나는 평범한 농업공간이 ‘꽃손님’ 발길을 잡는 멋진 정원으로 변신하거든요.”

꽃객이 벌이는 농업의 일대전환, 가치의 공유를 통해 만나는 지역의 변화상, 마법이 따로 없다.

첫 등지로 다시 확장하는 제2의 꽃객,

꽃객프로젝트 금파농장

꽃객은 3만여 평($66,000m^2$)의 너른 들의 정원에 펼쳐진 10여 만 본의 핑크뮬리, 핑크메밀, 백일홍, 천일홍, 코끼아, 네모필라, 알리움, 붉은구절초, 팜파스 같은 아름다운 꽃이며 정원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더불어 몇해 전부터 15분 거리 성내면 조동리 금파농장을 꽃객프로젝트 두 번째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금 꽃객이 초본 중심이라면 꽃객프





<꽃객> 초기 모습



로젝트 금파농장은 목본, 나무꽃 중심이다. 벌써 식재 기반을 조성하며 나무 가꾸기에 한창이다. 고창읍 벚꽃축제에 이어지는 ‘벚꽃 지면 해당화’, ‘안개나무 꽃파티’, 모란꽃 바탕 ‘향단아, 꽃 띠워라’, ‘푸른바다 블루아이’, ‘핑크 팜파스 축제’ 이렇게 다섯 갈래 흐름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 꽃객의 그물코를 끼어가려는 꿈,

잘잘잘 이루어가기를

그가 꿈꾸는 여러 개의 꽃객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 꽃손님들과 이루어갈 지역창생의 가치도 활짝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꽃객의 그물코가 지역 전체의 살림살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흥미로운 연쇄로 작용할 테니 말이다.



특집/ 로컬 축제 2024고창국제책영화제

‘들어봐, 시인처럼. 더듬, 더듬’ 책과 영화, 사람을 잇는 책영화제

2024고창국제책영화제, 생태예술제, 행성지구인문학을 더듬다

“영화만 이야기하지 말고 영화의 바탕, 원전인 책도 함께 이야기해요” 하며 시작한 고창국제책영화제가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책마을해리에서 ‘시 영화, 시인과 영화’를 주제로 열렸다. 책영화제는 2017년 ‘책과 영화, 모험을 떠나다’ 타이틀로 첫 번째 책영화제를 연 뒤로 매년 책마을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과 영화의 축제다. 하나의 주제를 잡고,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8회 책영화제는 여러 나라 열두 개 영화와 책이 어우러진 책과 영화 마당이었다.

시인으로 열고 영화로 닫는 책영화제

시와 시인, 영화의 밤

올해 책영화제는 산풍성신 솟대전시 열여덟 ‘솟대, 책이랑 어울어지다전’, 책영화제해리 ‘책영화전’, ‘바

오를 사랑한 어린왕자전’, ‘생명솟는생태그림전’ 전시와 씨글래스 키링 만들기 체험, 레터프레스 활자 체험, 한지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놀이와 함께 했다.



책영화제 첫날은 이병률 시인과 <시인 이병률의 화양연화> 북토크를 함께했다. 이병률의 시집『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의 시를 낭독하고 이병률 시인의 시와 삶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북토크 뒤 이병률 시인의 인생영화 <화양연화>를 야외 책뜰에서 상영했다.

둘째 날은, 70여 명의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했다. <책영화버스>에 올라 책영화도 보고, 영화의 원전인 책도 읽었다. 책뜰에서 진행하는 체험도 즐기며 알찬 책영화제해리를 경험했다.

셋째 날은, 페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와 이 책을 영화화한 빌 어거스트 감독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이야기를 양진호 씨네북토커와 함께했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리스본의 봄)이 있기 전 40년 이상 이어진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의 이야기다. 영화를 함께 본 참가자들은 “안경이 깨져서 새로 안경을 맞추며 어느 쪽 삶을 선택할건지 묻는 것처럼 느껴져 인상 깊었다”, “우리 처지와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지 절망스럽기도 하다”, “리스본행 야간열차처럼 우리 사회의 상황을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을까 생각된다” 하고 소감을 전했다.

책영화제 넷째 날은 생태예술제로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씨글래스아트와 <물사르는 위터버닝> 갯벌 예술활동을 함께했다. 동호와 명사십리, 장호갯벌에서 생태 정화 활동을 한 참가자들은 펄을 상괭이 모양으로 파서 모은 부표, 폭죽 탄피, 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넣어 표현했다.

문학평론가 신범순 교수는 <가을, 시학>을 통해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를 통해 미당 서정주의 시를 재평가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강연했다.



책영화제 닫는 풍성풍성한

영화감독, 시인, 건축가들의 환상호흡

책영화제 마지막 날에는 시나리오그림책 『초록눈 호랑이』와 『비밀의 정원』의 작가 여균동 감독의 북토크로 시작했다. 여균동 영화감독은 현재 귀촌하여 지역 청소년과 함께 영화를 만들고 있다. 시나리오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하곤 하는데, 시나리오와 같은 그림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나리오그림책을 쓰고 그렸다고 한다.

책마을해리 갤러리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오를 사랑한 어린왕자전>과 <생명 솟는 생태그림전>의 작가인 박남준 시인과 과재환 교수의 북토크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여행에세이『안녕♡바오』와 건축에세이『짓다』작가이기도 하다. 박남준 시인은 책의 탄생배경과 여행의 과정, 자연 속에서 느꼈던 감정 등을 생생하게 전하였고, 과재환 교수는 건축이론과 신념을 건축물 이미지를 통해 쉽게 느낄 수 있

도록 이야기했다. 포크가수 인디언수니와 황건 배우의 작은 공연과 함께했다.

책영화제 마지막 영화 <팬찮아 앤리스>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용감한 청소년 ‘앨리스’들의 이야기다. 성적에 대한 압박과 부모와의 갈등, 교우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학생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껌이 어 1년동안 온전히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을 담았다.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의 고민과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영화를 함께 본 참가자들은, 서로 팬찮다고 응원하며 지역마다 공동체 상영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눴다.

한국영화 로케이션 맛집 고창에서 책영화, 행성지구인문학, 생태예술제의 단단한 고리

고창은 영화 배경의 도시이다. 우리나라 영화의 배경으로 꽤 잘 쓰인다. 로케이션 맛집인 셈이다. 한국영화의 배경지로 빠질 수 없는 고창과,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책마을과 만남은 필연이다. 벌써 8년째 소소한 영화제는 <어린이문화연대>, <순창어린이청소년영화제>, <한국영화교육아카데미> 같은 어린이문화단체, 영화단체 들이 함께해, 책영화제의 앞길을 이야기 나눴다. 지역 바탕에서 보편과 특수를 어울리게 하는 문화적 역량으로 확장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책영화와 더불어 세 번째 생태예술제, 두 번째 행성지구인문학도 함께 이웃행사로 열렸다. 가까운 서해 바다에 사는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테마로 <상괭이부표예술전> <행성을 가르는 상괭이 조형> 전시와 청소년 대상 생태워크숍이 함께 열렸다. 행성지구인문학은 <포와 접으로 풀어보는 동학>을 테마로 인문학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밤을 지샜다.

영화와 강연을 듣기 위해 온 가족이 찾아온 방문객부터 연인, 전국에서 놀러온 청소년들과 마을의 어르신까지 이번 제8회 책영화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북토크와 강연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했다. 앞으로도 재미난 주제의 책과 영화를 전하는 책영화제가 되길 바란다.





트레저헌터, 고창 일곱 보물을 찾고 알리고 나누는 최전선에서

고창문화관광해설사협회 박미영 회장

고창을 쉽고 새롭게 이야기하다

〈보물찾GO 선물받GO 고창팡팡 스템프투어〉, “도장 찍는 곳” 안내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창읍성 관광안내소는 고창읍성 앞 판소리박물관에서 천변으로 몇발짝 건너 참 단아하게 자리잡았다. 몇 해 전만 해도 군립미술관 자리, 이제는 소담한 한옥의 자태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고창관광 제일선에서 고창을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고창문화관광해설사들의 안방이기도 하다.

서글서글 눈매가 편안해도 여려운 관문을 거쳐서

거쳐서 해설사 역할을 하게 된다.

“5년 이상 해설사로 일해온 분들은 1년에 20시간, 5년이 채 안된 분들은 25시간을 해마다 교육받아야 해요.”

한번 해설사가 되었다고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해설 시연에 해설 시나리오까지 맞춤하게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고창군 자체 교육은 물론이고 도해설사로 역할하는 것이어서 각오도 단단하다. 해설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미영 님 이야기다. 고창군에서 해설사 제도를 시작한 2003년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고창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어 전해주는 일에 한결같은 이다.

지금은 고창관내 문화예술관광 거점 여섯 군데에서 모두 스물아홉 분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섯 군데 관광거점은, 고창읍성·판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선운산도립공원, 미당시문학관, 무장현관아와 읍성, 동학농민혁명홍보관이다. 처음 시작하면서 여덟 분이었는데, 고창 이야기거리가 늘어난 만큼 해설하는 주체도 늘어난 셈이다.

“처음 해설사로 역할하면서 누군가 고창을 알고 싶어 먼길 마다 않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하나씩 고





창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준다는 것에 자부심이 컼죠.”

그리고 혹시 찾아주신 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 못할까, 걱정이 되어 더 열심히 찾고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창은 설창이라 불릴 만큼 눈이 많다. 예정에 없는 폭설이 내린 날, 정보 공유가 안돼 고인돌 채석장을 오르다가 멈춘 일이 있다. 눈보라를 헤치고 온 관광객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친

결음이었는데, 찾아온 분이나 안내하는 해설사나, 서로 많이 아쉬웠던 기억도 새록새록하다.

“우리나라 곳곳에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마음, 또 알고 나면 애정을 갖는 분들이세요.”

고창을 애써 찾아오는 분들이라서인지, 박 회장은 아직 별스럽게 ‘갑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웃는 낮에 웃는 낮, 어쩌면 고창문화관광해설사들이 먼저 살뜰한 미소로 맞이하기 때문일 테다. 고창이라는 이름 앞에 두고, 누구든 맨 처음 맞이하는 존재, 미소와 고창사랑, 해박한 고창 이야기로 완전무장한 채로 걸어다니는, 고창박사님들이다. 자랑거리가 있다. 지난 11월 익산에서 가진 전북해설사워크숍에서 시·군 장기 자랑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기자랑 주제는 <유네스코 7개 보물>이었다.

고창사람들이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박 회장과 해설사들은 바깥손님들에게만 아니라 안사람들, 군민들에게 부탁이 있다고 한다. 고창사람들이 오히려 고창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사는 고창, 내가 알아온 고창과 다른 고창이 늘 새롭게 발굴돼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비한 고창의 새 빛깔을 함께 알고 사랑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민대상 문화관광해설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군민 모두가 고창을 제대로 알리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창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랑하고 싶은 보물들 천지다. 우리 고창 사람 모두가 그 빛나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고창천 따라 흐르는 따순 바람, 오래된 미래를 오늘로 불러오다

한정식당 <조양관>에서 힙카페 <옛도심조양관>으로 변신

고창을 재해석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가을이 익고 익어 터질 듯 피어나는 날, 고창읍 핫플레이스 조양관을 찾았다. 고창 천변 일방통행길은 고즈넉하다. 길 한켠에 주차공간이 넉넉하다. 고창읍 한복판을 흐르며 천변 마을 사람들 마음에 흐르는 따순 정으로 그저 포근포근한 옛 풍경으로 결

어 들어간다.

조양관은 1935년 일제강점기 시기 지어진 100년 가까이 지긋한 공간이다. 같은 이름 일본식 여관으로 시작해 해방 뒤에는 요릿집으로, 고창 맛을 내림하는 전통한정식집으로 고창 안팎에 이름을 각인시켜왔다.





조양관은 2층 박공지붕에 일식 시멘트 기와를 얹고 외벽은 목재비늘 판벽 마감으로 처리된 제법 규모가 큰 목조 건축물이다. 오랜 건물의 내력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가 되어 차근차근 리모델링을 진행해 새 단장 뒤 카페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고창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센터장 김현정)에서 시범운영했고, 지난 11월부터는 <옛도심조양관협동조합(이사장 김종균)>에서 맡아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창읍옛도심조양관협동조합은요. 일곱 개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카페 교육도 제대로 받고 역할을 나눠 제대로 준비해 운영을 시작했어요. 협동조합 체제로요.”

주민행복공동체로 '활짝'

카페는 50대 이상 장년층에게는 <조양관>이라는 이름이 주는 향수, 옛 추억을 선물하고 20대, 30대 젊은층에게는 벌써부터 고창의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는 공간이 되었다고 한다. 조국장은 25년 전 남편 발령으로 고창에 처음 발을 딛고 당시 한정식집으로 운영되던 이곳 2층에서 떡벌어진 한식 한상을 받고 놀라던 기억을 소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추억의 공간을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에 맞게 젊은 세대는 젊은 감성 공간으로 만나게 해 더 의미가 깊어요.”

중정에 정원을 들여 계절마다 멋드러진 풍경을 선물하고 한켠에 오랜 <조양관>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며 1층 전체 크고 작은 공간에 옛 정취를 맛보게 하는 카페 공간, 2층은 단체중심으로 회의, 워크



숍,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는 소소한 쓸모를 챙겨넣었다.

지역활동가들, 특히 청년활동가들과 살림을 꾸려가는 옛도심조양관은 오픈에 따른 일시적인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오래오래 조양관의 명성처럼 이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고루 돌아가는 공동체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신재효고택과 고창읍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중추역할을 하며 편안히 쉼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그래서 메뉴도 고창 맛, 고창에서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식재료로 차려보았어요.”

고창수박으로 즉석 수박주스며, 복분자에이드와 라떼, 블루베리 음료며 고창 식재료로 만든 여러 케이크로 손님을 맞고 있다.

주민협의체와 중간지원조직, 행정이 발 맞춰 키워가는 주민행복 공동체로 <옛도심조양관> 카페가 활짝 피어나길 고대한다. 고창천 흐르는 따순 바람처럼.



‘착하게 먹어요’ 보드란 봄 마음으로 365일을 사는

고창읍 석정리 브런치카페 <밀과보리>

변화한 고창읍을 벗어나 석정온천휴스파 가는 길
곁으로 두런두런 작은 솔밭 그늘이 차분하게 눈에
들어온다. 오래된 저울 위 검정보드에 큰 영문 대문
자로 ‘카페’라 쓰인 안내판이 소담하다. 우리밀, 고
창의 식재료를 바탕으로 건강한 맛을 나누는 브런
치카페 <밀과보리>와 만났다.

건강한 마음 바탕에서 지역 안팎 사람들과 만나는
“착하게 먹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를 표현하는 말
이에요.”

<밀과보리>를 운영하는 김누리 씨 이야기다. 내
가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 말
고는 내놓지 않는 ‘건강한 마음 바탕’에서 지역 안팎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다. 석정떡방, 부모님이 운영하는 떡집 곁에 소담하게 자리잡은 조영돈 씨와 사이에 일곱 살 아이와 아직 뱃속에 생글 자라는 둘째를 둔 어버이 마음으로 먹고보고마시는 것들을 차리고 있다.

“매장에서 고객과 만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밀과보리〉는 찾아오는 손님에 더해 찾아가며 밀과보리가 찾은 맛을 전하는 일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들과 쿠킹클래스를 열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매개해 만나고 있다.

“건강한 맛이 몸에 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또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맛을 전하는 거니까요.”

명쾌하다. 이 생각은 생태중심 여러 가지 활동으



로도 번져나가게 한다. 지난 가을에는 치유문화축제에 부스를 열고 오감 가운데 미감을 맛을 깨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갯벌센터와 함께 〈갯벌장〉에 참가해 고창 명품 보리와 땅콩으로 만든 젤라또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보니, 매장 곳곳에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제품이며 분리수거며 굿즈들이 즐비하다. ‘매장에서 제공되는 테이크아

웃 일회용품은 자연에서 생분해됩니다.’

‘착하게 먹어요’는, 비건지향 건강한 먹거리프로그램으로도 확장한다. 카페에서 열두세 명 남짓 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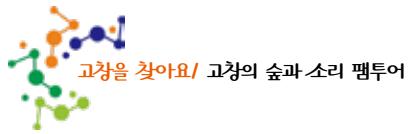


하게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한다. 진지하게 맛과 건강, 생태적 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오가는 자리다. 부친이 농사지은 블루베리며, 고창 농부 친구들이 지은 루꼴라를 이용한 파스타도 그렇고, 샌드위치 한 조각에도 가공육 사용을 금하고 본연의 맛을 찾아가는 작은 여정이 빛나는 모임이다. 작은 걸음은, 앞으로 체험농장 조성과 운영에도 닿아있다.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영돈 씨 뜻이다. 우리 쌀을 중심에 놓고 체험과 음식을 매개하는 다양한 농사와 체험을 기획하고 있다. 쌀에서 베이킹, 떡, 다양한 쌀요리로 이어지는 생태전환의 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더해서, 밀과보리 카페 앞 너른 뜰에 밀이 소복소복 자라는 꿈이 조만간 이뤄질 모양이다. 풀명 방장산 명에 꼭 맞춤한 카페 안 너른 창에 밀밭멍하는 새로운 명소가 태어날 예감이다.

**땅을 밟고 맨흙을 만지며 생명을 뿌리는
석정떡방 곁 <밀과보리>는 <밀방앗간>에서 시작
해 <슬라곰>을 거쳐 지금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글쎄요, 하고 싶은 일이 하도 많아서, 콘셉트를
바꿀 때마다 네이밍과 인테리어를 바꾸었어요.”

다음 시즌은 흙이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체험중심으로 모드를 전환하려고 한다. 재배 체험시설을 거나하게 만들어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는 체험이 아니라, 땅을 밟고, 맨흙을 만지며 생명을 뿌리고 성장을 돋고 거두어 활용하는 조금은 불편한 체험을 기반으로 하려고 한다.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도 함께 태어날 것인데, 지금까지 고창의 한켠을 굳게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늘늘 새로운 위시시기를.



고창만의 웰니스를 찾아서

치유여행, 고창의 숲과 소리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몸과 마음의 평화는 작은 것에도 행복함을 느끼고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든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특수목적관광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지역과는 다른, 차별화된 고창군만의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치유여행-고창의 숲과 소리' 팬투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고창의 자연과 문화 안에서 누구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8월 24일 전국 각지에서 지역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SNS를 활용해 재치있게 소개하고 있는 참가자 26명(11팀)을 선발하여 고창만의 웰니스 프로그램 ‘치유여행-고창의 숲과 소리’ 패트워너를 진행했다.

‘치유여행-고창의 숲과 소리’ 패트워너는 고창의 자연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창읍성, 신재효 판소리공원, 국립고창치유의숲에서 두 명의 고창 생물권 스토리텔러가 함께했다.

자연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참가자들이 ‘치유여행-고창의 숲과 소리’ 패트워너에서 처음으로 만난 장소는 고창읍성이다. 고창읍성은 왜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 축성한 자연석 성곽으로 모양성이이라고도 한다. 22동의 건

물이 있었으나 병화로 소진되었고 1976년부터 복원 사업을 통해 14동의 건물을 복원했다. 고창군민이 모두 모여 즐기는 모양성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스토리텔러와 함께 고창읍성의 객사와 동헌, 척화비 등 역사 유적을 탐방하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맹종죽림을 거닐었다.

고창읍성 성문을 나와 잘 닦인 길을 따라가면 ‘신재효 판소리공원’이 나온다. 고창은 진채선, 허금파, 김소희 등 많은 명창과 대가를 배출했다. 특히, 춘향가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가루지기타령 등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향으로 자택에 재주 있는 사람을 모아 소리를 전수했다. 현재 신재효의 대저택인 동리정사의 사랑채만 남아있다.

참가자들은 소리꾼이 들려주는 고창의 판소리 이



야기와 함께 판소리 배우기 체험을 했다. 판소리의 장단을 맞추는 부채와 북, 고수의 추임새, 발림, 소리를 배웠다. 명창이 선창하면 참가자들은 후창했다. 아이와 함께 온 참가자는 “판소리가 이렇게 멋지고 즐겁고 아름다운 건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요. 추임새만으로도 흥이 절로 나요.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신재효 판소리공원에서 판소리 공연을 감상하며 휴식한 뒤 고창의 자연이 내어준 제철 나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를 했다.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국립고창치유의숲으로 이동하여 편백 베개 만들기 체험과 온열 치유 체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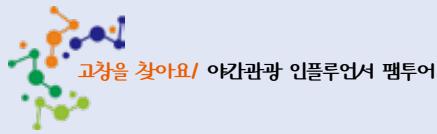
숲의 향과 소리, 추억을 베개 삼아

국립고창치유의숲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이 조성한 국가 시설이다. 노령산맥권 휴양지 유밸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의 아름다운 문수산(축령산) 편백숲에 산림치유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읍 고수면 일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총 33만 평 부지에 9만 평 가량 편백나무가 있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참가자들은 국립고창치유의숲 제2치유센터에서 청진기로 가만히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편백향 오일을 바르며 내음을 맡아보기도 했다. 메뚜기, 방아깨비도 관찰하고 편백숲으로 트래킹을 떠났다. 무더운 여름 편백숲 안으로 들어가니 몸도 마음도 시원했다. 크게 숨 쉬어보고 해먹에 누워 숲의 소리도 듣고, 편백숲의 향과 소리와 추억을 베개로 만들어 보기도 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고창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열정 넘치는 스토리텔러의 이야기와 함께해서 즐거웠고, 일상에서 벗어나 내 안의 평화를 찾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고창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을 찾아요 / 아간관광 인플루언서 팬투어

어둠을 밝히는 별빛으로 빛나는 고창 야경

동호해수욕장 노을, 고창읍성 미디어아트

어둠이 내린 고창은 은하수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아도 좋은 고장이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이나 홀로 여행을 위해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공간을 미리 다녀간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고창을 여행하기 원한다면 SNS에 #고창여행을 검색해 다른 사람이 올린 예쁜 사진을 살펴보고, 고창브이로그 영상을 보며 정보를 탐색한다.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행책자나 브로슈어를 신청해서 여행할 곳을 정했던 때가 그립기도 하다.





동호해수욕장 노을

지난 9월 고창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과 가족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인플루언서 16명(SNS 팔로워 5천명 이상)을 선발하여 동호해수욕장, 고창읍성을 여행하는 패트워를 진행했다.

동호해수욕장 노을과 고창읍성 야경

지난 9월 28일 열여섯 명의 인플루언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허브를 재배하고 추출하며 허브향에 취하는 보니타정원에서 향초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허브를 키우고, 허브에서 향을 추출하는 전문적인 이야기부터 내 손으로 직접 향초를 만들며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여행객들 사이에 노을맛집으로 소문난 동호해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바라본 노을

욕장으로 이동했다. 오늘이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붉디붉은 빛을 뿜내며 해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노을이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황홀한 석양을 만날 수 있다. 동호해수욕장의 노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던 참가자도 잠시 자연에 기대어 오롯이 노을

을 감상했다.

풍천의 유래를 아시나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공간 중에서도 고창의 인천강은 강과 바다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장어는 바다 어디에서 산란하여 왜 다시 강으로 돌아와 사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장어 양식이 어려운 이유다. 장어 산란기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아기 장어를 잡는 모습도 재미지다. 이야기를 알고 먹으니 더 맛 있는 풍천장어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어둠 한가운데 홀로 빛나는 고창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청초한 소나무가 반긴다. 소나무 사이로 별빛을 따라 걷다 보면 하늘에 닿을 듯한 맹종죽림이다. 맹종죽림을 화려하게 비추는 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진다. 반짝반짝 마치 내가 은하수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신비로운 고창읍성은 이번 패투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 특히 맹종죽림 아트쇼는 규모가 크고 매력적이라 평했다.

고창, 밤의 신비 속으로

패투어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는 고창의 매력에 풋 빠져 영상과 이미지로 기록한 내용을 편집하여 여행후기를 피드와 릴스 등의 자체 콘텐츠로 제작하여 업로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패투어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는 주간에만 보던 관광지를 야간 관광을 하니 새롭게 보여 좋았다, 서해안 갯벌 산책과 해질녘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다. 역사 유적지에서 만나는 미디어아트가 크고 화려해서 이색적이었고 자연경관과 문화도시 고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말했다.

이번 패투어를 통해 고창군의 야간 관광자원을 SNS에 홍보하고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고창의 매력에 빠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보나티정원



일랑일랑 카페

천혜의 자연환경, 고창의 문화유산과 함께한 ‘라이딩 고창’

어지러운 길 바람을 갈라
저 앞의 낯익은 코너를 돌면
넌 어느샌가 나타났다 ‘자 페달을 밟아라’
— 페퍼톤스/Bike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고창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들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인 무장포고문,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고창병바위 등 유네스코가 인정한 일곱 가지 보물을 보유한 지역이기도 하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월 21~22일 1박 2일간 전국에서 모인 18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청정 지역인 고창의 명소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친환경 관광 활성화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친환경 관광 활성화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은 철도와 자전거를 연계한 친환경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푸르른 자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우러진 고창을 자전거로 둘러보며 관광객의 다양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고창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전거 여행 첫날,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정읍역에 도착하는 자전거 전용 열차인 에코레일 열차를 타고 정읍역에 하차하여 철새들의 낙원인 동림저수지까지 13킬로미터 코스를 라이딩했다. 고창은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자전거 여행 첫날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가 내려 라이딩을 도왔다.

동림저수지에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 참가자들은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라고 파이팅을 외치며 형형색색의 우비를 입고 안전한 자전거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첫날 오후 자전거 라이딩 코스는 김소희 생가를 거쳐 고창갯벌 자전거길과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심원면소재지를 지나 선운산 도립공원으로 가는 총 44킬로미터를 달리는 코스였다.

동림저수지에서 논과 밭이 펼쳐진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국창 만정 김소희의 생가가 나온다. 만정 김소희는 1964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신영희, 이명희, 안숙선 등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판소리 세계화에 힘썼다.

고창은 해양생태계와 수많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고창갯벌이 경이롭다. 참가자들은 고창갯벌 길을 따라 조성한 자전거길과 람사르고창갯벌센터를 바다와 갯벌, 염생 동식물들을 관찰하며 시원하게 달렸다. 서해안 바람공원에서 바다와 해송길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휴식한 뒤 심원면 소재지를 지나 선운산도립공원을 라이딩하며 자전거 여행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자전거 여행 첫날 참가자들은 “즐거워요. 아주 재



미있어요”, “비가 와서 더 좋았어요”, “근래에 더웠는데 비가 와서 딱 좋았다”, “비 오는 날 즐기기 좋은 코스였어요”, “임도가 환상적이었어요”라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친환경 관광 활성화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 둘째 날은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시작해 복분자 농공단지,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고창전통시장, 고창읍성, 고창MTB파크, 방장산, 백양사역에서 끝나는 50킬로미터 코스를 주행했다.

비가 그친 시원한 날씨에 잘 닦인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렸다. 녹음이 짙은 운곡습지에 들어서는 시원한 나무 그늘과 습지 주변을 달리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나아갔다. 자연을 배경으로 서로서로 모여 사진으로 추억을 담았다.

고창전통시장을 지나는 코스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주변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겼다. 고창읍성과

MTB파크, 방장산 자연휴양림 등 고창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며 전국에 고창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알렸다.

멋지다, 라이딩 고창

이번 ‘친환경 관광 활성화 자전거 여행’에 참여한 참가자는 “에코레일열차를 이용하니 교통이 편리해서 좋았다”,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수려했다”, “라이딩하기 좋은 인도가 많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음식이 맛있고 주민이 친절하다”, “고창에서 한 달 살 이를 하며 구석구석 라이딩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청정 고창에서 나만의 자전거 명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자연문화유산과 어우러진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고창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고창영화의 전당, 작아서 발길이 더 경쾌한 동리시네마

개봉작 상영관에 독립예술영화의 맛까지 곁들인

고창읍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영화관이 두 개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림극장이다. 고창전통시장에서 고창읍성 방향으로 지척이었다. 지금은 빌라단지로 개발되어 흔적도 없어진 <성림극장>은 고창군민들에게 영화의 갈증을 풀어주던 귀한 공간이었다. 성림은 미국 캘리포니아 할리우드(Hollywood, 가시나무새숲)를 성스러운 숲(Holy wood, 聖林)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역한 이름이다. 고창 사람들에게 오래 머물러온 그 성림극장의 추억이 이제는 고창읍성 광장, 동리국악당 지하, <동리시네마>로 옮겨간다.





고창영화관 변천사의 오늘, 동리시네마

동리시네마는 2014년 사라진 영화관을 다시 불러오는, 작은영화관조성사업으로 발을 뗄었다. 첫 걸음은 고창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였고, 2020년에는 포스시네마에서 이어 위탁을, 올해부터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직영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주 월요일, 화요일 휴무이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영화 <명량>이 개관 한달 뒤에 만원사례를 기록하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려 개관 초기부터 운영정상화가 되었다. 매년 관람객이 늘어가는 와중에 안타까운 코로나에 적자가 누적되어 잠시 우물쭈물하기도 했다. 이제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지역기관과 함께여는

영화축제에서 찾아가는 영화관까지

동리시네마는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기관과 함께 작은 영화축제를 갖는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이 고창군장애인자립센터 천옥희 센터장과 함께, 장애인의 날이 있는 10월 장애인영화제를 공동개최하는 것이다. 그밖에 예술·독립영화를 관람하면 커피 한잔이 무료로 제공되는 씨네브런치 행사, 고창문화도시센터와 함께 협업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동리시네마 문화마실,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진행하는 작은영화관 기획전 등이 풍성함을 더한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해서 매년



<하얼빈> 2024년 12월 25일 개봉예정

감독: 우민호

배우: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1908년 함경북도 신아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국공법에 따라 전쟁포로인 일본인들을 풀어주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독립군 사이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안중근을 비롯해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 최재형, 이창섭 등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이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하얼빈으로 향하고, 내부에서 새어 나간 이들의 작전 내용을 입수한 일본군들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2025년 2월 개봉예정

감독: 줄리어스 오나

배우: 안소니 마키, 해리슨 포드, 팀 블레이크 넬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5의 다섯 번째 영화이자 캡틴 아메리카 실사영화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부제인 '브레이브 뉴 월드(Brave New World)'는 올더스 헉슬리의 SF 소설 『멋진 신세계』의 원제에서 따온 것이다.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샘 월슨이 대통령이 된 로스 장군과 재회 후 전 세계를 불길에 장악하려는 적의 사악한 음모를 추격해 나가는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좋은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팬데믹 전의 <찾아가는 영화제>도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다. 해마다 20~30차례 마을 찾아가, 어르신들 오순도순 모여서 영화 보도록 돋는 영화프로그램이다. 빠질 수 없는 팝콘에 음료수를 곁들인다. 영화는 저작권 관례로 최신 영화보다는 1~2년 전의 흥행작 중심으로 상영했다고 한다.

이번 주말엔 고창 영화 맛집

동리시네마 예약버튼, '누름'

고창군민들에게 오랜 영화의 갈증을 풀어주는 동리시네마는 귀한 존재다. 흥행작을 여는 개봉관이면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의 순기능을 고창군민에게 선물하는 귀한 공간이다. 이 글과 고창영화관의 흐름, 준비하고 있는 영화리스트를 확신하셨다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우리들의 영화 맛집, '동리시네마'로 걸음 내딛으시기를.

2024년, 관광팀으로서 고창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올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고창의 관광을 빛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관광팀 이광민

기간제 근로자로 잠깐 일하였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 직장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재단, 센터 직원 모두가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잘 적응 할 수 있었고 업무도 어려움없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직원 모두가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사업팀 이채하

2024년은 끝나가도 문화도시 사업은 아직 ing... 할 거 다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참고 줄여가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꼴고 끌어주며 치유문화도시 고창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죠... 앞으로도 주욱~!!!

주민협력팀 박진영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서로 도우며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민협력팀 김민찬

재단에 입사해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좋았던 날, 너무 힘들었던 날, 아팠던 날 등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과 동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모두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 이창섭

고창문화관광재단 직원 모두는 더 나은 문화와 관광 서비스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사업팀 봉두만

고창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은 매일 고창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2025년에도 고창의 다양한 매력을 여러 분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즐거운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요!

경영지원팀 김다영

다가오는 2025년에는 모두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품화팀 이승우

모두가 하나 되어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성장을 이끌어 온 2024년, 내년에도 더 큰 목표를 향해 건강과 행복을 놓치지 않으며 함께 나아가요!

경영지원팀 김유빈

2024년 한 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덕분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창의 문화 발전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사업팀 한지혜

2024년 담당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노력해서 사업을 완료해냈을 때 큰 성취감과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업무에 도전해 경험과 지식을 넓히고 싶습니다.

관광팀 송은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문화진흥팀 유정선

센터 처음 입사 했을때 “언니같은 마음으로 많이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문화진흥팀 설희

고_고창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창_창대하고 창창하게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
문_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은 서로에게 위
로가 되는 문화도시
화_화려한 것도 좋지만 오로지 문화자원에 깃든 우리의 삶, 우리
의 정신, 우리의 문화에 기반하여 치유문화가 생활화된 도시
관_관광객들이 저절로 찾을 정도로 풀뿌린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
광_광활한 고창의 대지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세계유
산을 가지고 있는 치유문화도시 고창
재_재도약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에서
단_단, 하나의 唯一無二한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도시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유특화팀 오정준

관광 안내 전화를 받으면서 고창의 새로운 것도 알게 되며 저 또한 고창의 아름다움이 더욱 알려졌음 합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위로와 응원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가 되어 고창의 문화 관광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이화진

올 한 해도 가족처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세요.

문화진흥팀 최은성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멋진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민협력팀 한인호

공연 소식



가족뮤지컬 레미자라블 코제트 소녀 이야기

12월 23일(월) 19:30 고창문화의전당
• 관람료_ 10,000원(고창군민 특별 할인)
 일반 3,000원 / 청소년(어린이) 1,500원
• 관람연령_ 36개월 이상
• 티켓오픈_ 12월 16일(월) 09:00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고창문화의전당
 예매 및 현장 동시예매(현장예매 주말 제외)



2024 고창송년음악회

12월 19일(목) 19:30 고창문화의전당
• 출연_ 황미숙(고창군민), 국악예술단 고창, 김
 지혜(소프라노), 정수인·박현지(판소리),
 노동용(바리톤), 장사익(특별출연)
• 관람료_ 무료, 티켓예매시 입장 가능
• 관람연령_ 6세 이상
• 티켓오픈_ 12월 12일(목) 09:00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고창문화의전당
 예매 및 현장 동시예매(현장예매 주말 제외)

고창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

12월 18일(수) 16:00 고창문화의전당

- 출연_ 고창문화원(모양청소년오케스트라), 강호합창(강호오케스트라, 에어포일 밴드, 루시드 댄스), 고창고(엔젤로스 밴스), 고창중(제스트 댄스), 고창초(늘푸른중창단)
- 관람료_ 무료, 티켓예매시 입장 가능
- 관람연령_ 6세 이상
- 티켓오픈_ 12월 12일(목) 09:00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고창문화의전당 예매 및 현장 동시예매(현장예매 주말 제외)

고창 새 책



땅울림

지은이: 라남근

1987년은 항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시간이었다. 6월항쟁으로 불리는 민주화를 향한 격변의 시간, 호남 들판에서도 대토지 지주와 소작인들 사이 묵직한 '항쟁'의 드라마가 있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과 해리면 농민들이 대토지주 삼양사와 벌인『소작 짓는 땅 되돌려받기 쌔움, 소작답양도투쟁』이다. 해방 전 삼양사가 간척한 땅에 깃들어 소작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땅찾기 대항쟁의 서사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토지개혁으로 마땅히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야 할 땅을, '미간척지'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땅의 주인이 될 기회를 잃고 만다. 재계(대기업 삼양사)와 정계(인촌 김성수), 언론계(동아일보)의 비호 아래, 30년 넘는 세월을 소작농민으로 살아야 했던 600여 농가 농민들이 합성을 지피기 시작한 것이다. 고창소작답양도투쟁은 땅의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학생,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농민회들과 힘을 합쳐 땅을 되찾은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땅울림』은, 1985년부터 1987년 9월 11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사건을 주도한 '김재만'의 가계로부터 시작해 함께 싸운 마을 사람들의 면면이며, 협조했던 사회단체 사이에 벌어진 항쟁의 역사를 소설로 기록한 책이다.



서해랑길 워킹투어 2_전북 고창에서 충남 태안으로 이어 걸다

지은이: 조유향

해남 땅끝탑에서 영광으로 전라남도를 걷고 『서해랑길 워킹투어』를 출간한 저자는 곧이어 서해랑길을 전북 고창에서 충남 태안으로 이어 걸었다. 서해랑길 41코스부터 70코스까지 길이다. 저자는 41~43코스에 걸쳐 고창을 걷는다. 41코스는 구시포해변에서 심원면사무소까지 19.7K로, 심원면 10경,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 람사르고창갯벌, 고창 천년의 소금 역사, 만들어낸 체험마을, 서해안 바람공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노을미항 동호항, 동호해수욕장을 소개한다. 42코스는 심원면사무소에서 선운사 버스정류장까지 11.6Km로, 화산마을, 천년고찰선운산과 선운사를 소개한다. 43코스는 선운사버스정류장에서 사포버스정류장까지 21.1km로, 풍천 연기마을, 질마재와 미당 서정주 생가, 김소희 명장을 만난다.



안내 바로가기



고창문화관광재단
GOCHA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고창 GREEN 발자국

고창에서 즐기는 친환경 여행

2024.9.6.(금) - 상품 소진 시 까지

고창에서 초록빛 발자국을 남기는 친환경 여행에 동참해주세요!

참여대상

고창 여행지를 방문하는 관외 거주자 누구나

참여방법

공통

캠페인 운영장소 방문하여 공동미션 수행

(공동미션) 친환경 여행 서약서 작성(10점), 병뚜껑 기부(선택/20점)

선택

선택미션 수행 후 인증사진 전달(재단 카카오톡)

(선택미션) 10점 : 저탄소 이동수단 이용, 텀블러/리유저블 컵 이용 등
20점 : 전반 포장시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캠페인 SNS 인증

운영장소

협력사업체

- | | |
|---------------------|--|
| (숙박)
정보리가(家) | (체험)
지구정거장 |
| (카페)
밀과보리
고화당 | (식당)
김복남맥주
모양성순두부
모꼬지함초
바지락칼국수 |

관광지/기관

- 선운산 관광안내소
람사르고창갯벌센터
고창문화관광재단
동리시네마

문의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팀 ☎ 070-4914-7200

리워드 상품



병뚜껑 업사이클링 치약짜개
(현장수령)



리유저블 코튼백



친환경 머그잔



코튼백+머그잔

*상품 증정은 기간내 1회 참여 가능합니다. *상품 소진 시 증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고창 여행 중 미션 달성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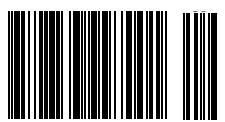
풍성하고 따뜻한 한해 되소서!



gctf.or.kr

blog.naver.com/gctf1110

instagram.com/gochang_gctf



ISSN 2733-9971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